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 개발

광양시, 5월까지 담장 보수·수목 심고 관람로·보안등 정비
향토유산 연계 문화관광 거점 활용... 문화재청에 이관 요청

광양시가 오는 5월 중순까지 백운산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습림 광양사무소 직원 관사 2개동으로 지난 2005년 국가 등록문화재 제23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고 지난해 착공해 오는 5월까지 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담장 보수, 수목

식재, 관람로·보안등 등을 정비한다.
광양시는 이 관사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받거나 협의를 요청했으며, 인근 장도전수교육관·광양역사문화관과 연계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관사를 이관받아 광양향토 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국가등록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된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광양시 제공>

매화축제 취소한 광양시 "매화마을도 오지 마세요"

"봄꽃축제의 대명사인 광양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지금 시기엔 그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죠. 관광객들도 가급적이면 광양 매화마을에 오지 마세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광양매화축제를 전격 취소한 광양시가 지난 27일 관광객들에게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올봄에는 가급적 매화마을 방문을 자

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매화축제를 취소하면서 행사장에서 열리는 한 직거래장터와 지역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푸드트럭도 모두 취소했다.
광양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화마을을 찾는 상춘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4~15일 교통통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 등과 함께 도로 교통지도와 주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노점상과 야시장, 품바 공연, 불법 도로 점유, 무허가 건축물도 단속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속도 낸다

광양경제청, 사업시행자 미래에셋컨소시엄으로 변경 고시
연륙교 2024년 완공...6성급 호텔·케이볼카 등 5월부터 착공

여수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전남 개발공사에서 미래에셋으로 변경되면서다.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여수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미래에셋컨소시엄으로 변경 고시됐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1월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의 조기 실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부지 대금 등 1975억 원을 전남개발공사에 납부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은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80%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췄다.
미래에셋은 오는 4월 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미개발 토지 잔금 950억 원을 납부한 뒤 소유권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콘도미니엄은 2024년 12월까지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을 계획이다.
경도지구 개발 사업의 관건이었던 연륙교 설치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오는 2024년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도 연륙교 원료 시점에 맞춰 미래에셋컨소시엄은 네덜란드 해양관광 전문 용역사인 유엔 스튜디오(UN Studio)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국내 최고급 6성급 호텔과 해수욕, 가든스파, 케이볼카 등을 오는 5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여수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광양경제청 제공>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경도 개발이 완료되면 여수지역에 매년 외국인 관광객 82만 명, 생산유발 2조2000억 원, 고용효

과 1만4000여명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정현복 시장·종교단체 지도자 코로나19 대응 논의



정현복 광양시장과 광양지역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지난 28일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8일 시장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 6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양시기독교연합회 허기연 목사(사곡교회)·이일근 목사(담곡교회)·최성수 목사(태인제일교회)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태균 신부(광양성당), 광양불교사찰연합회 현능스님(보광사)·대륜스님(삼광사)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다수의 신도가 모이는 예배·미사·법회·교육 등 종교행사를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당분간 종교행사를 최소화하고 정부 예방지침을 준수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천주교는 광주대교구 지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미사 등 모든 모임을 중지했으며, 불교계는 종단 지침에 따라 집회·법회를 최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오늘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 조정

옥곡~진월 34번 노선 폐지
4개 마을 100원 택시 추가 운영

광양시는 올해 새로 개편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종전 44회에서 13

회로 줄여 태인동 방면을 운행하는 88번 노선을 다시 18회로 5회 증회한다.
중마동 순환버스 1000번과 1001번은 길조상가 내를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12번 노선은 옥곡면 장동마을을 경유해 운행한다. 35-1번 노선은 다압면 동동마을을 1일 2회 경유한다. 또 옥곡면 백암마을 32번 노선은 3회에서 4회로 1회 증회하고,

11-2번 노선은 중마터미널에서 오후 10시~10시40분에 3회 증회해 중마동에서 광양읍 방향의 막차 시간을 늦췄다.
아울러 광양읍에서 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87번의 2회차, 3회차 노선은 창덕아파트단지를 경유하게 된다.
옥곡에서 진월로 운행하는 34번 노선은 버스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폐지하고 진월면 일부 구덕·신덕·신기·구동 4개 마을은 100원 택시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광양시는 일부 조정된 개편 내용을 읍면동과 SNS, 버스정보시스템,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생활정보(교통정보)에 게시하고 버스승강장에도 운행 노선도를 부착해 시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해중 광양시 교통과장은 "이번 시내버스 일부 노선 개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부 지역의 노선을 조정,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포스코그룹, 코로나19 극복 50억원 지원

포스코그룹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인 경북에 본사와 다수 사업장이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구호기금은 포스코 40억원과 포스코인터네셔널·포스코건설·포스코케미칼·포스코에너지·포스코ICT에서 10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출원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손소독제·마스크 등 의료구호물품, 자가격리자 생필품, 방역 및 예방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들과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룹사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